

연중 제 6 주일

기도서 344 면

제 1 독서 : 예레 17, 5-8

제 2 독서 : 고린 전 15, 12, 16-20

복 음 : 루가 6, 17, 20-26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감 론



眞 宗 教

김 윤 섭 신부

宗教(Religio)란 무한·절대의 초인간적 神을 숭배(혹 숭)하고 신앙하여 이로 인하여 선악을 권계(勸誡)하고 영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일반 개념이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천주교를 비롯하여 장로교, 불교, 통일교, 원불교, 증산교, 도교 등등 이름도 모르는 신흥 종교들이 대나무 숲이 돌아나듯 일어나 모두 자기들이 참된 종교라고 선전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어느 것이 참된 종교인지 혼돈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한 마디로 우리는 종교 범람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종교가 다 참된 종교이겠는가? 나름대로는 다 옳다고 하겠지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나의 소견으로 재고해 보고자 한다.

‘宗’은 마루라는 뜻이다. 우리말에 ‘마루’라는 말이 여러 곳에 쓰인다. 예를 들면 ‘산마루’, ‘용마루’ 등이다. 산마루는 산등성이를 가리키고, 용마루는 초가집 지붕 꼭대기에 비가 새지 않도록 최후에 덮는 나래를 가리킨다. 이 마루라는 말은 영어로 climax라한다. climax는 우리말로 절정, 끝, 최고봉을 가리킨다. 인생의 절정과 끝은 곧 죽음이다.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고, 극락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은 바로 종교에는 내세관이 확실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教’는 가르친다는 뜻이다. 가르침에는 깨달음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를 영어로 understand라 한다. understand를 직역하면 밑에 서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宗教’라는 글자체가 말해 주듯이 종교는 내세관이 뚜렷하여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끝장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 즉 천당과 극락이 있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신 밑에 인간이 정착하게 서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이다. 내세관이 없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다. 사마니즘이 종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엄격히 따져보면 내세관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眞에 있다. 종교가 진리편에서 있지 못하고 거짓과 불의에 결합될 때 그 종교는 죽은 종교요, 불의에 결합된 종교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眞宗教란 과학적이고, 철학적이며 이치에 맞는 가르침과 확실한 내세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는 진리 편에서 있어야 한다. 진리 편에서 있는 종교만이 믿을 만한 종교라 할 수 있다.

(원평 주임신부)



두 이야기

—설날 아침에

이태리 사람들은 전화 통화시간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한다. 해외 토픽 뉴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6분이 넘으면 할증료가 붙게 되어 시끄럽다고 한다.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우리들은 3분 통화로도 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6분 통화에도 불만이라고 한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위헌(違憲)시비가 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도 말쑥이 되고 있다고 한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전화통을 내던지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당국자의 답변에는 여유가 만만하다. —“로미오와 JULIET의 사랑 고백도 6분을 넘지 않는다.”

기름값도 내리고, LP가스 값이 내린지도 오래다. 그런데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요금에는 변동이 없는게 우리나라 상황이다. 우리들은 그냥 조용하게 꿀떡꿀떡 참아가며 지내왔다. 최근에야 보도기관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추산에 의하면 업자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고 한다. 이제사 당국에서는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한다. 업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저라 누가 돈을 벌어도 대한민국을 벗어나지 않으니 별문제는 없다. 그러나 서민들의 입장에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통화시간을 6분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기본권 침해라고 들고 나서는데, 우리들은 참으로 양반이다. 조용하게 살아가는데 숙달된 우리들, 어쩌면 그것을 미덕으로 알고 사는 우리들의 처지에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감회가 크다. 그렇다고 그것을 한낱 감상으로 여기고 말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설날이다. 우리 것을 찾고 지키자는 마당에서 이중과세 시비로 문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설날은 설날이다. 이 아침에 무언가 새다짐을 해보자. 필요하다면 버틸 것은 버려야 하겠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굳게 지키자.

숲 정 이 산책



세상을 떠난분을 위하여...

200주년 특집 ㉔



시복시성 추진운동의 의미

지난 7일 가톨릭 센터에서는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전국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교 복자 유해 순회 기도회를 통한 시복시성 추진에 대한 문제가 각 교구의 현황을 들으면서 토의되었다. 우리 전주교구에서도 복자 유해 순회 기도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정신운동 분과에서 담당하여 실시하게 된다.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복시성 추진운동의 의미를 간략하게 생각해 본다.

* * *

지나온 200년 동안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103위의 순교복자들을 모시게 되었으나 모두가 프랑스 선교사들의 고마운 노력과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손으로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기념 중에 가장 거룩하고 보람있는 역사적인 기념이 될 것이다.

시복시성을 결코 사후의 관직 추서라든가 계급의 승진이나 유공자 후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시복시성이 비록 한 인간의 이 미 다 마친 과거 생활이 거룩하였기에 추대하는 것이지만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며, 특히 그 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바로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시복시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은 천상에서 복자요 성인들이시다. 더우기 시복시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복시성 예정보다도 시복시성 추진운동이며 시복시성 이후의 후속적인 신심운동인 것이다.

시복시성의 근본 목적은 세세대에 우리 선조들의 일생이 후손들의 정신과 생활 속에 성직하게 살아서 전승되게 함이어야 한다. 즉 시복시성 추진운동은 그분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고 그분들의 생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며, 우리도 그분들의 죽음을 죽자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시복시성 추진운동의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들도 선조들처럼 순교정신으로, 진리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주년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감격적인 환호와 성대한 잔치, 또 교황성하의 초청, 기념회의와 각종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해야 하겠지만, 이 모든 행사의 이유와 동기가 되고 목적과 기초가 되며 근본 정신이 되는 것은 거룩한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생활이어야 한다. 우리의 기념행사 속에 그분들의 정신이 빠져있고 그분들의 생활을 본받는 면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것은 영혼없는 시체와 같을 것이다. 교회도 성직자도 없던 시절에 신앙의 압력 속에서 가시덤불을 헤쳐며 우리의 자랑스런 한국 교회를 세우신 참된 성현들의 정신과 생애를 이어받으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전례 해설

사순절(四旬節)

사순절이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40일을 뜻하며 교회는 신자들에게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던 기간을 회상시키면서 회개와 극기와 선행을 권장하면서 그 시기를 거룩하게 지내도록 하고 있다.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로 시작한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창세 3, 19)-이 말씀과 함께 이날 미사 전에 사제는 사람들의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재를 발라준다. 인간 타락 이야기에서 따온 창세기의 말씀을 들려주며 십자가 모양으로 뿌려주는 재는 깊은 진리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 재의 수요일 전례에 빠져서는 안되겠다. 인생은 짧은 것이다. 재의 예식은 오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암시하기도 한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순절은 축제의 때가 아니고 각성의 때이다. 복음 정신으로 '깨어있는' 때이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수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지배가 새로와지도록 노력하는 때이다. 이 노력이 주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에 따르는 것이라면 각 사람에 따라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이는 담배나 술이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사업과 가정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면밀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혹은 자기의 어려움을 참는 새로운 노력이, 혹은 남의 곤경에 좀더 깊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가지 지극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일은 남에게, 특히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동기로 회사를 하는 일이다.

사순절의 신심 행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크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침·저녁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식사 때의 기도가 그저 습관에 흘러버리지 않도록 온 가족이 마음을 합할 일이다. 수난에 대하여 묵상을 하고 성당에 가서 여러 가지 사순절 전례에 참여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사순절은 양심을 잘 성찰하여 진지한 고백을 하는 때이다. 때때로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수난의 길을 묵상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사순절 동안 미사중에 사제의 제의색은 자색으로 바뀌며 미사중에 계속하던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하지 않게 된다. 사순절 동안 교회는 모든 화려함을 피하며 일체의 축제를 생략하고 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태도에 있어서도 근엄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

푸른 사장

이 준영(모이세)

전화 2-3840

구 성모병원(시내버스 승강장) 앞

발달로

전동성당

정약국

약사: 정석현(마르코)

전화 2-9615

성모병원

정약국 푸른사장

L.P.G 판매, 시설

한국 가스 상사

신속배달, 무료점검

☎ ③ 1457, ④ 5928

주 이 안젤라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밤 고 눈을 편 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터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3032

윤(베드로) 종선



□ 청소년을 위한 성소 목상회

금번 교구에서는 사회의 요구에 응하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삶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성소의 의미를 일깨워 바른 성소의 길을 지향하도록 하고자 목상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되도록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83년 2월 19일~20일(1박 2일) 대상: 남녀 고등학생
회비: 2천원 접수: 19일<토>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주관: 교구 사목국

□ 여성 푸르실로 성료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있었던 여성 제14차 푸르실로 교육은 선배 푸르실리스트들의 성원과 격려로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특별히 선배 푸르실리스트들의 깊은 관심과 성대한 환영은 내일의 푸르실로 육성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있을 2월 26일부터의 남성 푸르실로 교육에도 푸르실리스트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기대해 본다.

연 3박 4일을 꼬박 봉사와 희생으로 지새워준 김 병환 지도신부님과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리며, 교육을 수료한 50명 자매들의 더 큰 분발과 교회를 위한 봉사를 빌어마지 않는다.

□ 켄 모임 매주 토요일 가톨릭 센터에서

회콜라레 켄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에 본당을 초월한 모임을 가톨릭 센터에서 갖기로 하였다. 그동안 중앙 성당을 중심으로 하여 하였으나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목적으로 장소를 가톨릭 센터로 옮기었다.

매주 모임 시간은 토요일 오후 5시이며 켄의 이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모두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당분간 월 전체 모임은 종전대로 전주 중앙 성당에서 갖는다.

□ 라디오 베리따스 한국어 방송시간 및 주파수 안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라디오 베리따스 방송국에서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수녀들이 단파로 한국어 방송을 하고 있다. 장거리 단파 수신이 가능한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라며 청취 소감의 편지도 기다리고 있다. (Radio Veritas P.O. Box 939 Manila PHILIPPINES)

주파수: 오전-9.740, 11.725 오후-9.605
시간: 한국시간 오전-7시~7시25분, 오후-9시30분~9시55분
국제시간 22:00~22:25, 12:30~12:55

프로그램: 월-자, 함께 다리를 놓아요. 한국 가톨릭 소식

화-아시아의 이모저모

5분 명상

수-영가의 세계

5분 드라마

목-다나의 일기

금-청취자 코너

토-바로 지금입니다.

세계 가톨릭 소식

일-주님과 함께(재)

제10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정관 제32조에 의거 제10차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함
일시: 1983년 2월 19일<토> 오후 1시30분
장소: 전북 예술회관(시청 옆) 4층 공연장
부의안건: ①전차회의록 승인. ②82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③감사보고 승인. ④잉여금 처분(안) 승인. ⑤8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⑥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 ⑦임원선거. ⑧임원보선 위임의견 ⑨의사록 서명날인인 전입의견. ⑩기타사항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장준수

요십이 (497) 김병오



의료효과의 선구자!
신비의 토론회

성모土龍센터

왜관(聖 베네딕트 修道會)

※ 간경화 및 위암은 직접 문의 바람

◎전북 총판: 전주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72-3925

◎제조공급처: 경북 칠곡군 왜관읍(수도원 농장)

전화 2-2626

성체유치원

원 아 모 집

83년 2월 1일~2월 25일까지 선착순

전화 ②8408 번

전주시 중노송동 361

K. S. 표시 허가공장

신흥 콘크리트

☎ ⑥6016 ⑥6415

대표 이교성(요셉)

시멘트, 벽돌, 블록, 보도블록, 철근 콘크리트관, 근가, 철근 콘크리트판

□ 관광 안내

주식회사 한길관광여행사

군산시 중앙로 1가 시청사거리

전화 ②0339 ②1147

옥구 161, 547

대표이사 박노석(요한)
상영감사 문재원(젤라시오)
제주·설악 대한항공 대리점

□마춤·대여

웨딩드레스·약혼복·연주복·부케·신부화장·비디오 촬영

신부의 집

동서관통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⑥6951

정인기(논저노)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재의 수요일(16일) : 단식과 금육일
2. 남덕 고등학생 성소 목상회 : 19일(토) 오후 2시부터(1박2일). 가톨릭 센터, 회비-2천원
3. 휘폴라레 모임 : 전주 체모임-19일(토) 오후 5시, 가톨릭 센터
월 전체 여자모임-20일(일) 오후 2시30분, 장소-중앙 성당
4. 성심여고 졸업생 신자 모임 : 20일(일) 오전 10시, 장소-성심학교(미사 있음)
5. 교리교사 동계 연수회 : 21일~23일, 장소-송광사
6. 공동체 목상회 : 22일~25일(전착순 40명), 접수-교육국 M. B. W추진회
7. 남성 제17차 푸르실료 : 2월 26일~3월 1일, 수강료-2만원, 신청마감-2월 16일, 접수-교육국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김훈민
보좌 신부 안기영
사도 회장 김민철

전화 ⑥1711~3

- ※ 중앙신협 정기총회 : 20일 1시부터, 장소-중앙성당
1. 재의 수요일 : 16일
 2. 구정합동 위령미사 : 13일-공식미사·저녁미사
 3. 중학교 개학 : 19일, 지도자-이민희, 이미경, 김근희
 4. 주일학교 졸업식 : 19일
 5. 유치원 졸업식 : 15일 오전 10시30분
 6. 자모회 총회 : 11일 오후 2시
 7. 대학생회 100차 공개회합 : 17일 4시30분, 교리실
 8. 신축헌금 신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입신식·김정례(각 20만원), 김동규(30만원), 최순
임·이창섭·최옥남(각 5만원), 이성우·김순주·이
성우(각 10만원), 찬성하울 정녀 이익금-15,400원
 9. 새 지구팀을 환영합니다
이소영(세시리아), 강경순(사비나)
- 지난주 봉헌금 : 805,628원 교무금 : 689,8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수·사 ⑥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나춘재
사도 회장 이홍재

1. 구정합동 위령미사 : 예물은 오늘 저녁미사 전까지
 2. 신학생 후원기금 모금 : 2월 16일~4월 3일까지
 3. 재의 수요일 : 16일 금육과 단식을 지킵시다
 4. 사순절 특별갈문 : 매주(수) 밤, 미사-8시, 강론-8시30분~9시30분까지, 2월중에는 16일, 17일·23일
 5. 분당 울드레야 임원 : 회장-조혜영, 부회장-박순근·이혜리나, 간사-김종표·서모니카
 6. 가정방문 : 사순절 동안 방문하겠습니다
 7. 차주의 전례담당
새벽미사 : 해설-서용문, 독서-①백인기 ②백금혁
공식미사 : 해설-이종관, 독서-①오보일 ②김규래
저녁미사 : 해설-은경순, 독서-①이종승 ②이유
기도담당-곽요셉·정순자, 제물봉헌-이수만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67,365원 교무금 : 220,500원

(덕진)

전화 ⑥2182번

주임 신부 김봉현
보좌 신부 정양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희생과 속죄의 사순절이 16일부터 가정 기도와 가정 연례미사 참례 바람
 2. 진복회 임원개선 : 회장-이봉우, 부회장-유제상, 총무-소완영
 3. 분당 대학생 모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학생회관 대학생들과 교수님들
 4. 집사인 교리 강좌안내(현재 120명 등록)
젊은이(미혼 남녀)-수요일 저녁 7시30분(정신부님)
직장인(기혼 남녀)-목요일 저녁 7시30분(분당신부)
 5. 봉헌금(신축헌금+교무금) 빠짐없이 신입합니다
금주 신입세대 19세대-250만원
신입 누계-126세대-40,170,000원 신입
 6. 사순절 단식과 금육일 : 단식은 만21세부터 60세까지-2월 16일·4월 1일, 금육은 만14세부터-2월 16일·18일·25일, 3월 4일·11일·18일·25일, 4월 1일
 7. 오늘 공식미사는 구정 합동위령미사 봉헌
- 지난주 봉헌금 : 477,475원 교무금 : 235,000원

(복자)

전화 ⑥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복자신협 제7차 정기총회 : 19일 1시30분, 복자성당
2. 성우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20일)
3. 자모회 : 14일 어머니미사 후
4. 재의 수요일 : 16일, 단식과 금육(사순절 시작)
5. 반회장 회의 : 27일 공식미사 후

6. 주일학교 졸업식 : 20일
 7. 신학생후원 위한 헌금 : 사순절기간 단식·금육한 분
 8. 사순절기간 선경외기 : 불 판공성사 준비-요한복음
 9. 판면홍배 : 판면홍배 안하고 사는 신자 신청 바람
 10. 금주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①천진 ②이상인
차주전례 : 해설-김인식, 독서-①이갑진 ②송영자
- 지난주 봉헌금 : 530,090원

(서학동)

전화 ⑥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구정 합동미사 : 앞서가신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반장님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3. 푸리아 모임 : 오늘 오후 2시 회의실
 4. 할머니 모임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성심회 모임 : 17일 오후 2시 회의실
 6. 남성 푸르실료 : 제17차 2월26일~3월1일, 신청 마감
 7. 재의 수요일 : 16일, 작년에 받아가신 성지가져 반납
 8. 전례담당 : 독서-①강기호 ②박형식
- 지난주 봉헌금 : 242,690원 교무금 : 60,000원

(숲정리)

전화 ⑥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⑥9567

1. 합동 위령미사 : 공식미사 때
 2. 유치원 원아모집
 3. 단식 및 금육제 :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은 단식(21세~60세), 사순절 금요일마다 금육제(14세이상)
 4. 신앙 강연회 : 16·17·23일-이인복 교수(제목 : 죽음)
 5. 불판공 할고 : 불판공-3월 14일~28일까지
 6. 신학생위한 헌금 : 사순절 강연회마다 특별헌금 있음
 7. 환송·환영! : 이베로니카 수녀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김혜리나 수녀님 남원분당으로 가셨습니다
 8. 신협 정기총회 : 2월 20일
 9. 금주전례 : 해설-김경주, 독서-①김중환 ②송용호
기도-이강호, 박병열
- 차주전례 : 해설-김경주, 독서-①강원모 ②김영채
기도-정주복·송용호
- 지난주 봉금 : 171,121원 교무금 : 382,100원

(전동)

신부 ⑥6208

전화 사무 ⑥3222

수녀 ⑥8347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찬길
사도 회장 이종두

1. 성화회·장우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푸리아·포미시움 : 다음주
 3. 신학생 후원회에 가입하세요 : 회원 1인당 1천원
 4. 83년도 교무금 신입해 주세요 : 사무실
 5. 대건신용협동조합 : 제10차 정기총회
2월 19일 오후 1시30분, 전북 예술회관 4층 공연장
 6.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 해설-서정옥, 독서-①이영태 ②김홍기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이영철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 680,600원 교무금 : 477,500원

(파티마)

신부 ⑥0915

수녀 ⑥4804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봉사분과에서 수집한 고의 : 갱생원(12상자), 자활원(6상자) 9일 전달
 2. 구정합동 위령미사 : 10시, 저녁 7시30분 미사
 3. 재의 수요일 : 많은 분의 참석 위해 저녁미사로 변경
 4. 로사리오의 모후 푸리아 연충친목회 : 19일 13시20분
 5. 수류분당 사제관 위해 : 다음주 봉헌금 정성껏 봉헌
단식과 금육 : 재의수요일, 성금요일
금육-사순절 매 금요일
 7. 십자가의 길 : 수요일(16일) 미사후,
 8. 학생미사 : 토요일 오후5시, 썰미사 : 토요일 오후4시
- 지난주 봉헌금 : 306,240원 교무금 : 309,000원